

#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가능성 높다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지난 17일 광양역에서 '경전선 KTX-이음'의 광양역 정차를 위해 추진한 서명운동 5만명 달성 시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역 정차를 위한 광양시의 5만명 서명운동이 7만명을 넘어서며 이를 환영하는 시민 축하행사도 열렸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광양시장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시장은 "광양시가 남해안권 산업·경제 중심 도시임에도 수도권 방면 전라선 KTX가 운행되지 않아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열차 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전선 KTX-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한다면, 경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져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전선

## 원희룡 장관에 건의, 긍정 답변 5만명 서명 목표에 7만명 달성 "광양역 주춧돌 삼아 도약 다짐"

KTX-이음 광양역 정차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전체 시민의 45%인 6만 8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해 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점도 역설했다.

원희룡 장관은 광양시가 남해안권 경제 중추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정인화(오른쪽) 광양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전선 순천-부전간 KTX-이음 열차의 정차역이 전남권에서는 순천역만 확정됐다. 경남권은 마산에서 부전까지 사상역, 강서금호역, 경마공원역 등 7개 역에 정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광양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광양시민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광양역에서 '경전선 KTX-이음'의 광양역 정차를 위해 추진한 서명운동 7만명 달성 시민 축하행사가 열렸다. 광양시는 5만명 목표 서명운동에서 7만명을 훌쩍 넘는 결과물로 이어져 이를 환영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공동협의회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명배 광양시의회 의장, 김진환 민간추진위원장, 김진환 공동부위원장 12명, 시의회 의원, 고중석 광양역장, 새마을금고 김재숙 이사장, KTX-이음 열차 모델(EMU-260)을 상징하는 260명의 시민이 함께 했다. 정 시장은 "석달 만에 7만 명의 마

음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광양 시민들의 의지와 자신감이 결집된 결과"라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주춧돌 삼아 경제·관광·산업 복합 중심지로 도약하는 광양의 백년대계를 열자"고 말했다.

지난 17일 7만명의 서명서 전달에 이어 공동협의회장과 민간추진위원장이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건의문'에 서명한 후 시민 염원을 담은 친환경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목표였던 5만명을 넘는 7만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많은 시민이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염원했기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인화 시장은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건의서를 전달했다. 광양시민들은 올 하반기 예정된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결정에서 '광양역'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어린이통학차 LPG차 전환지원 광양시, 15대·대당 700만원

광양시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71대를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로 대당 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광양시이고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합·승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를 구매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례조항에 따라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폐차하거나 신차 구매 등록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어린이 창의 미래인재 키운다 광양시, 1인 1악기 지원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악 활동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인 사고와 예술성 함양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악기는 바이올린, 디지털피아노, 사물놀이, 우쿨렐레, 난타북, 드럼 등으로 보육시설별 최대 20개 내외다. 수업료는 월 4회 기준 25만원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한다.

이광용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이 각자 하나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악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확정

광양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은 'ABC(Ai Bigdata Cloud) 중심의 스마트 청정 미래산업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혁신형 탄소중립 완성 도시 구축을 통한 기업과 인구 증가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성장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로 △1단계 수소, 이차전지의

인프라 구축 지원,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준비, 데이터경제 기반 구축 △2단계 에너지 전환기 선도도시 도약, 신비즈니스 모델 육성 지원 △3단계 친환경 미래산업 도시 도약, 데이터경제 중심도시 도약 △4단계 혁신형 탄소중립 완성 도시 구축을 통한 기업과 인구 증가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성장도시 구현이라는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했다.

그동안 외부환경과 내부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 대안을 도출했으며 기존 철강, 향만 핵심산업의 혁신과 수소, 이

차전지, 소재, 데이터, 드론 등 미래 신성장동력 구축, 지원 체계, 연구기관, 인재 육성의 인프라를 구축해 4대 전략방향과 10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4대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미래 그린도시 경제기반 구축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구현 △4차산업혁명 융합 플랫폼 기반조성이다.

10대 전략과제는 △철강산업 산업경쟁력 강화 △향만을 활용한 디지털 신성장동력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산업생태

계 구축 △데이터기반 미래산업 육성 △핵심 인프라 중심 탄소중립 전환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생활밀착형 지능형 서비스 제공 △4차산업혁명 제도 및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인력 육성 △광양시 미래 인력 육성이다.

각 부서에서 추진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엔 도출된 29개 사업을 포함해 정부정책 동향에 맞는 사업들을 확대 발전시키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월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소확밀 밀반찬 지원사업 발대식 광양시 중마동



광양시 중마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12가구에 밀반찬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발대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소확밀(소소하지만 확실한 Meal)' 밀반찬 지원사업은 혼자 살면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밀반찬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광양시와 사랑나눔복지재단, 다사랑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의체 위원들이 6개월간 월 2회 대상자들에게 직접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역경제 살린다

광양시가 19일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 장기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광양사랑상품권은 지난해까지 3123억9300만원을 판매해 지역 자금 역

외 유출 방지에 도움을 줬다. 시는 지난해 8월 지류형태의 상품권을 모바일 카드로 변경했으며 올해는 700억원을 발행해 연중 10% 할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이며 결제 시 캐시백으로 10% 적립(월 최대 10만원)된다.

상품권 구매는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모바일 앱(chak)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판매금융기관(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5월 우체국 11개소를 추가해 판매대행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상품권 사용은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가맹점 신청은 시 홈페이지, 지역경제과, 읍·면·동사무나 모바일 앱(chak)에서 신청 가능하다.

bc카드사나 농협카드에 가맹을 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방법과 구매 방법에 대해 전단지, 이통장회의, SNS, 시 홈페이지, 언론 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2월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